



오리협회, 신훈진 신임 전무 영입



◀ 신훈진 전무

한국오리협회(회장 김규중)는 협회 활성화를 위해 신임 전무를 영입했다. 오리협회는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신훈진씨를 전무로 영입하고 지난달 1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신훈진 전무는 농림부를 비롯해 축산진흥회, 축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에서 근무해 왔다.

신 전무는 “오리업계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오리농가들이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전무는 “협회는 비록 작고 외소해 보이지만 협회가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며 “회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회원들간의 인화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권상의 교육홍보팀장 발령



◀ 권상의 홍보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직무대행 최준구)는 교육홍보팀장에 권상의 씨를 발령하고 지난달 8일 방역본부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권상의 팀장은 상지대학교를 졸업하고 축산전문기자로 10여년동안 전국축산현장을 돌면서 가축질병의 허와실을 심층 분석하는 등 가축질병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안) 계란 개당 1원, 닭고기 수당 20원 부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등급판정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수료 조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동소에 따르면 축산물 등급판정소 운영경비

의 대부분을 축산발전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금 보조가 2003년 기준 60.3%에서 2006년 40%로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수수료 조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는 현행 100천개 기준 50천원에서 50천개 기준 50천원으로 100% 상승되었으며, 아직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은 닭고기의 경우 1수당 20원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계란등급판정 집하장은 2005년 7월 현재 12개소,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장은 5개로 나타나고 있다.

육계자조금 거출방안 모색 간담회 자조금 거출방안 등 논의

축산신문사는 지난 10일 동사 사무실에서 '육계자조금 거출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육계자조금 거출에 계약농가와 계열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생산자들을 대표로 참석한 본회를 남상길 육계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공감을 표하고 "다만 자조금을 단독부담해야 하는 사계농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림사육농가협의회 심순택 사무국장과 체리부로사육농가협의회 이홍재 사무국장은 각 협의회 차원에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정리된 입장임을 전제, "자조금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계열주체지만 농가 역시 부수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더욱이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자조금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자조금 거출에 대해서는 계약사육농가들이 자조금을 부담하되 계열주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형태로 거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각 계열화업체와 해당계약사육농가간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계업계 등 자조금 거출대상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비영리집단인 생산자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대의원선거 등 자조금사업 출범을 위한 사전 비용부담에 정부의 배려를 요청키로 하였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오는 8월 31일 대전에서 비즈니스 박람회 연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8월 3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개최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홍보하였다.

최영열 대회장(양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박람회는 총 4,600여 평에 이르는 면적에 15개국 230여개 업체가 약 600여개에 부스를 유치하여 어느 박람회보다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성 전무(양돈협회)가 박람회 세부행사 및 부스 배치 현황을 안내하였다. 이어 윤희진 추진위원장은 박람회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업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 기자들의 역할이 컸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박람회는 재래닭 전시, 종돈 전시 등 부대 행사로 마련되는 만큼 차량소독, 입구소독, 출품 가축 체열 실시 등 방역에 역점을 두어 전염병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은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박람회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토종닭연합회

경기북부 토종닭 영농조합 법인 개소식

전국토종닭연합회 경기북부 토종닭 영농조합법인(지회장 허원행) 개소식이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등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허원행 지회장은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농협계육가공분사

‘또래오래’ 최단기간 500호점 돌파

농협 목우촌이 만든 치킨프랜차이즈 ‘또래

오래’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만에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500호점을 돌파하였다.

목우촌 ‘또래오래’는 지난해 12월 3백호점 개장 이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최단기간 기록을 세우면서 업계와 협동조합 등 안팎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같은 급성장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라이드치킨 등 치킨류 13종과 치킨버거 등 모든 제품에 100% 국내산 1등급 농협목우촌 닭고기만을 사용해 맛과 위생이 뛰어나 아이들과 주부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협계육가공분사 관계자는 2007년 또래오래 1천호점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관련농가와 전체 육계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양계농협

목계춘사료 하절기 서비스 호평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이영재)은 하절기를 기해 특수사료공급 서비스를 통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동조합은 지난 6월 1일부터 하절기 특수사료를 전국의 6개 협력사료공장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한 농장들이 혹서기에도 별 문제없이 산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하절기 특수사료는 더위에 매우 취약한 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테인과 비타민 등 영양소를 다량함유하고, 톡신흡착제, 전해질 제제 등도 첨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양계농협의 이밖에도 사료이용 및 출하능가에 대해 무상으로 차열도색을 실시해주는 등 양축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 현판식

농정차원 경마 자율성 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는 지난 12일 축산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전개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마산업을 경륜, 카지노, 로또 등의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제·개정 추진과 지방교육세 환원 등 마사회, 경마와 관련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달 13일 농축산단체 대표자 회의에서는 경마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로서 선용되고 농어촌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정차원에서 경마에 대한 자율성과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활동전개를 위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마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정의 회장이, 간사단체는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맡아 추진키로 하였다.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 운동 호응도 커 '이제는 Clean Farm'

축산신문사에서 지난 5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개하고 있는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 운동'이 농림부 산하 기관 단체는 물론 축산 관련 단체와 학계 업계, 그리고 축산 농가의 참여 속에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를 통한 친환경 축산 분위기가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앞으로 기관 단체별, 업체별 개별 스티커(이제는 클린팜)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깨끗한 농장 가꾸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우수 현장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분위기를 이끌어 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축산관련단체의 참여속에 깨끗한 농(목)장 가꾸기운동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장이 깨끗해 질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梁一仙)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에서는 '한 국민의 건강밥상! 품질 좋고 맛있는 우리 축산물로...'와 '한국인의 건강밥상 우리고기가 땀입니다.'란 슬로건으로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농림부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은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와 홀더화일, 우리 축산물을 이용한 개발요리 레시피 카드, 영양사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 브로슈어 등 「홍보 자료 개발」과 단체급식소에서 활용 가능한 「우리 축산물 요리 개발 및 시식회 개최」 그리고 본 협회 기관지 국민영양과 홈페이지, 대국민 영양교육 행사 및 영양사를 통한 단체급식소 홍보 등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 실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동회는 지난 8월 17일~18일 전국영양사 학술대회를 통해 그 동안 개발된 우리축산물 요리 ‘시식회’를 개최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남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梁一仙)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에서는 과다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환경부 지원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 생활정착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주 수요일을 남은 음식물 없는 날로 정하여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캠페인과 남은 음식물 감량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15,000여곳의 단체급식소, 하이서울 2005

건강엑스포,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패스트푸드 바로 알기 전시회 등을 통해 본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및 대국민 영양교육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황우석 교수 세계 최초 개 복제 성공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세계 최초로 애완견 복제에 성공, 세계 생명공학계를 또 한번 놀라게했다. 황우석교수는 지난 3일 서울대에서 내외신기자 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다. 국내 수의축산업계는 “역시 황우석 교수”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탄생한 복제개의 이름을 ‘스터피’로 명명되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착공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 중심의 연구팀이 사용하게 될 국제수준의 첨단 연구시설의 의생명공학연구동이 착공된다.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수의과대학에서 ‘의생명공학연구동’(일명



황우석 연구동) 기공식을 갖고 미래의학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운찬 서울대 총장, 이명박 서울시장,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생명공학연구동은 과학기술부가 2백여원의 연구시설비 전액을 출연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연구실험용 영장류 시설과 해외 생명공학 석학들과 협력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동연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400평 규모의 연구실험용 영장류 시설은 무균 미니 복제돼지에서 생산한 장기(臟器)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세포치료 적용 방식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어서 황 교수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규모는 부지 499평, 연건평 2천934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이다.

가축통계·축산물 생산비조사 축소 육계 등은 농진청 소득조사 품목으로 전환

앞으로는 가축통계조사와 축산물생산비조사

가 축소된다. 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와 농촌 사회·복지·문화·관광 현상 조사와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조사는 신규로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활용도가 낮은 통계를 폐지·축소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통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에 의거,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맞춰 농업통계를 개편, 농업통계개선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통계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책추진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통계는 신규로 개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조사, 농촌 사회·복지·문화·관광 현황 조사,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시·군단위 지역통계 추가 생산 제공, 농업·농촌 동향 모니터링 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담당기관을 농협중앙회에서 농관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반면 신규통계 개발 여력 확보를 위해 목적이 달성됐거나 중복 또는 우선순위가 낮은 통계는 폐지·축소되는데, 폐지되는 것은 논벼 병충해방제상황조사와 농업기계화율 조사, 누에사육·양잠규모 조사 등이며, 축소되는 것은 가축통계조사 항목·빈도로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되 동태분석은 농경연에서 월단위 관측조사를 활용토록 한다.

축산물생산비조사 항목도 6종에서 3종을 축소하고 육계 등은 농진청 소득조사 품목으로 전환한다.